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인정 편리해진다...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 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금액·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국세·관세 환급이자율 연 1.2%에서 2.9%로 인상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비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

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받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고령자장애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122만명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